

구왕실의 유물조사와 화약병기에 대하여 (舊王室의 遺物調査와 火藥兵器에 대하여)

陸軍士官學校博物館 館長

李 康 七

〈차 례〉

- | | |
|---------------|---------------|
| 1. 序言 | 5. 佛狼機 |
| 2. 舊王室遺物調査 | 6. 大碗口 및 飛震天雷 |
| 3. 勝字 및 雙勝字銃筒 | 7. 同治13年銘小砲 |
| 4. 萬曆 19年銘小銃筒 | 8. 結言 |

1. 서언(序言)

우리나라에서 화약병기(火藥兵器)가 발달(發達)된 것은 이미 지상(紙上)을 통(通)하여 널리 발표(發表) [허선도교수(許善道教授)집필(執筆)역사학보(歷史學報), 24,25,26,30,31 및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上) 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陸軍本部)발행(發行)] 되었고 또한 앞으로 계속사업(繼續事業)으로 추진(推進)하고 있는 바이며 기외(其外) 군사관계(軍事關係)에 대하여도 연구체제(研究體制)가 이루어져서 진행(進行)되고 있음을 매우 뜻있고 보람찬 일이라 하겠다.

이는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에 군사연구소(軍事研究所)가 1968년에 탄생(誕生)함으로써 비롯되는바 그 연구진(研究陣)이 대부분(大部分) 서울대학교(大學校) 문리과대학(文理科大學) 사학과(史學科) 출신(出身) 젊은 학자(學者)들로 구성(構成)되었고, 더욱 의욕적(意慾的)으로 업무(業務)를 추진(推進)하여 이미 시작(始作)한지 1년반(年半) 만에 한국군제사상권(韓國軍制史上卷) 여말선초(麗末鮮初)부터 임란전년(壬亂前年)(선조(宣祖) 24 : 1591까지), 이 출간(出刊)되었는바 이를 시종(始終) 주간(主幹)한 허선도(許善道)교수(教授)(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사학과(史學科) 근무(勤務))의 피어린 노고(勞苦)가 개재(介在)되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군사관계(軍事關係)에 대하여서는 여지껏 학자(學者)나 일반(一般) 또는 군사(軍事)를 직접담당(直接擔當)하고 있는 군인(軍人)들 자신(自身)도 고대(古代)군사관계(軍事關係)에 대하여서는 무관심(無關心)속에서 또는 연구대상(研究對象)에서 제외시(除外視)되었음은 실무자(實務者)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心情)이었다. 허나 이제 이와같은 난관(難關)을 극복(克服)하고 두각(頭角)을 나타낼 시기(時期)를 창조(創造)하게 됨을 매우 뜻있고 보람찬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필자(筆者)가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군사박물관(軍事博物館)을 책임(責任) 맡은 것은 1961년 가을부터 이었으며 그동안 경향각지(京鄕各地)에 산재(散在)한 군사관계(軍事關係)유물(遺物)은 물론 문헌수집(文獻蒐集)을 실시(實施)하였으며 특히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과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공립박물관(公立博物館)의 특별(特別)한 호의(好意)로서 발전적(發展的)인 체제(體制)를 갖추게 되었음은 의의(意義)깊은 일이라 하겠다.

한편 그간 수집(蒐集)한 유물(遺物)을 통(通)하여 군사(軍事)에 대한 관심(關心)을 촉구(促求)시키는 뜻과 선인(先人)들이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을 위한 독창적(獨創的)인 발전(發展)을 거듭한 정신(精神)을 계승(繼承)시키고자 하는 징애(徵哀)에서 64년도(年度)에는 제(第)1회(回) 고대무기특별전시(古代武器特別展示)(군사관계전반(軍事關係全般)에 대하여)를 개최(開催)하여 졸업식(卒業式)에 참여(參與)하셨던 대통령각하(大統領閣下)를 위시(爲始)한 많은 내빈(來賓)이 참관(參觀)하였고, 65년도(年度)에는 제(第)2회(回) 고대군사관계미술품특별전시(古代軍事關係美術品特別展示), 66년도(年度)에는 제(第)3회(回)고대군사관계창검류(古代軍事關係槍劍類) 및 파월장병전리품특별전시(派越將兵戰利品特別展示), 69년도에는 제(第)4회(回) 이조말군사관계사진특별전시(等李朝末軍事關係寫眞特別展示) 등(等)을 실시(實施)하여 군사관계(軍事關係) 전반(全般)에 대하여 체계(體系)를 이룩코져 하였으며, 더욱이 68년도(年度)에는 군사관계자료수집(軍事關係資料蒐集)을 위하여 일본국(日本國)의 각(各)주요기관(主要機關)을 견학(見學)하였으며 69년도(年度)에는 한국일보(韓國日報)가 주관(主管)하는 삼산학술조사단(三山學術調查團)에 참여(參與)하여 고대(古代)군사관계연구(軍事關係研究)에 안식(眼識)을 넓히게 되었다. 또한 동년(同年)에 실시(實施)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소장유물조사시(所藏遺物調査時)에는 군사관계유물(軍事關係遺物)(武具類)조사(調査)를 담당(擔當)하여 조사보고(調査報告)하는 등(等)의 제업무(諸業務)를 추진(推進)하였으며 특히 본지상(本紙上)을 통(通)하여 구왕실유물조사경위(舊王室遺物調査經緯)와 현재(現在)까지 수집(蒐集)된 유물(遺物)(특히 화기(火器))에 대하여 소개(紹介)코져 하는 바이다.

2. 구왕실유물조사(舊王室遺物調査)

1969년 6월 5일 문화재관리국장실(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구왕실(舊王室) 유물조사(遺物調査)를 위한 조사위원(調査委員)(각분야별(各分野別))들의 첫 회합(會合)을 기점(起點)으로 하여 대략(大略) 9월말(月末)까지 각분야별(各分野別)로 조사(調査)가 일단락(一段落)되어 그 결과(結果)가 동년(同年) 10월 21일자(日字) 한국일보(韓國日報)를 통(通)하여 널리 소개(紹介)된 바 있다.

너무나 과중(過重)한 책임(責任)을 맡은 필자(筆者)는 군인(軍人)의 신분(身分)이며 현재(現在)군사관계유물(軍事關係遺物)을 취급(取扱)하고 있는 관계상(關係上) 본(本)조사(調査)에도 무구류(武具類) 즉 군사관계(軍事關係)를 담당(擔當)하였는데 의외(意外)로 다른 유물(遺物)에 비(比)해 극(極)히 소수(小數)에 불과(不過)하였다. 더욱이 무구류(武具類)는 일반유물(一般遺物)에 비(比)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여지껏 무관심(無關心)속에서 또는 연구대상(研究對象)에서 제외(除外)된 점(點) 등(等)을 고려(考慮)하면 의외(意外)로 관리유지(管理維持)가 잘 되었고 유물(遺物)의 상태(狀態)(保管面에서)도 매우 좋은 편이었다. 이와같은 상황(狀況)에서 필자(筆者)는 본연(本然)의 임무(任務)도

있고 하여 매주(每週) 토(土) 일요일(日曜日)을 선정(選定)하여 조사(調查)하였고 특히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소장(所藏)한 군사관계유물(軍事關係遺物)은 대부분(大部分) 본관(本館)(陸士博物館)에서 이미 1963년도(年度)부터 대여(貸與)하여 진열(陣烈)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조사(調查)를 완료(完了)할 수가 있었다. 조사면(調查面)에 있어서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제정(制定)한 분류방침(分類方針)에 의거 실시(實施)하였는바.

1. 무구류(武具類)의 종류구별(種類區別)
2. 각칭(各稱)의 일원화(一元化)
3. 등급(等級)의 분류(分類)

등(等)의 3종(種)으로 대분(大分)하여 조사(調查)에 착수(着手)하였고 또한 위의 3종(種)을 세분(細分)하면

1. 무구류(武具類)의 종류별(種類別)
 - 가. 화기(火器) 나. 도검(刀劍) 다. 궁실(弓矢) 라. 갑위(甲冑)
 - 마. 기치(旗幟)등(等)과 현존유물(現存遺物)을 기준(基準)으로 분류(分類)하였고,
2. 명칭(名稱)의 일원화(一元化)

유물(遺物)의 명칭(名稱)은 유물(遺物)의 명문(銘文)을 확인(確認)함은 물론, 관계문헌(關係文獻) 등(等)을 참고(參考)로 하여 새로히 명칭(名稱)을 정리(整理)하였으며

3. 등급(等級)의 분류(分類)

이는 문화재등급(文化財等級) 분류(分類) 규정(規定)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分類)하였다.

- 가. 1급 : 국보(國寶)에 해당(該當)하는 것
- 나. 2급 : 보물(寶物)에 해당(該當)하는 것
- 다. 3급 : 1,2급에 해당(該當)하지 않으나 중요(重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것
- 라. 4급갑 : 참고품(參考品)에 해당(該當)하는 것
- 4급을 : 폐기품(廢棄品)에 해당(該當)하는 것

이상(以上)과 같은 방침(方針)하(下)에 조사(調查)를 진행(進行)하는데는 타분야(他分野)는 열외(列外)로 하고 무구류(武具類) 즉 필자(筆者)가 담당(擔當)한 분야(分野)는 처음이자 마지막 분야(分野)라는 관심(關心)하(下)에

1. 유물(遺物)의 실측(實測)
2. 명문(銘文)의 재확인(再確認)
3. 원형유지여부(原型維持與否)
4. 현상태(現狀態)의 촬영(撮影)

등(等)을 실시(實施)하면서 면밀(綿密)한 조사(調查)를 실시(實施)한 결과(結果) 다음 2로 소개(紹介)될 승자(勝者)와 쌍승자총통(雙勝字銃筒)을 발견(發見)하게 되었고, 종합적(綜合的)인 결과(結果)는 별항(別項) 1,2도표(圖表)와 같으며 한편 실측(實測)한 것은 청사진(靑寫眞)과 현상태(現狀態)의 사진(寫眞)을 촬영(撮影)하여 각각(各各) 일부식(一部式)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유물관리반(遺物管理班)에 보관(保管)토록 조치(措置)하였으며, 본조사(本調查)를 통(通)하여 느낀 점(點)은 1. 국(局)과 각궁(各宮)유물계(遺物係)와의 연결(連結)이 잘 되어 확실(確實)한 파악(把握)을 이루고 있으며 2. 각(各) 궁(宮) 공(共)히 유물(遺物)취급(取扱)과 정리(整理)

가 정중(鄭重)하였으며 3. 실물(實物)과의 행정정리(行政整理)가 일원화(一元化)되었다는 점(點)이며 단점(短點)을 지적(指摘)한다면 창고시설(倉庫施設)이 유물관리장소(遺物管理場所)로는 부적당(不適當)하다는 것을 지적(指摘)하고 싶다.

등급 별 통계

(도표 1)

등급	수장처	창 덕 궁	창 경 원	육사박물관(대여)			종 목	계
				창 경 원	창 덕 궁	칠 궁		
2	급	1			1			2
3	급	38	5	8	21	1	1	74
4	급	5	6		7			18
	갑							
	을		11					11
계		44	22	8	29	1	1	105

종류 별 통계

(도표 2)

종류	수장처	창 덕 궁	창 경 원	육사박물관(대여)			종 목	계
				창 경 원	창 덕 궁	칠 궁		
화	승 화 기	2		19				21
탄	환			5				5
도	검	18	13		7	1	1	40
	창	2	5					7
	철 제 무 기	5						5
궁	전 통	1		1				2
	뇌 궁	1			1			2
	소 궁	2						2
시	시	7						7
기	치	6						6
갑	주			1				1
방	패		2					2
수	차		2					2
기	타							3
계		44	22	29	8	1	1	105

3. 승자(勝者) 및 쌍승자총통(雙勝字銃筒)

화기(火器)의 발달(發達)은 우왕(禡王) 3년(1377) 최무선장군(崔茂宣將軍) 건백(建白)에 의(依)하여 화통도감(火桶都監)이 설치(設置)됨으로서 비롯되는 바 이는 북방(北方)

에서 침입(侵入)되는 적(敵)(野人)과 남부해안(南部海岸)을 수비(守備)(擊委)하는데 필요(必要)한 화기(火器)를 발전(發展)시켜 왔던 것으로 소화기류(小火器類)는 육전용(陸戰用)으로 중화기류(重火器類)는 해안수비용(海岸守備用)으로 각각(各各) 활용(活用)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소개(紹介)코져하는 승자총통(勝者銃筒)(1579)과 쌍승자총통(雙勝字銃筒)(1583)은 유통식(有筒式) 죽절형(竹節型)으로 된 동제(銅製)로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왕실유물조사(王室遺物調査時)에 발견(發見)된 화기(火器)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존(現存)되는 화기(火器)중(中) 연대(年代)가 비교적(比較的) 최고(最古)에 속(屬)하는 것으로 기제원(其諸元)과 형태(形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승자총통(勝者銃筒)의 제원(諸元)

- (가) 총장(總長) … 56.8cm
- (나) 병부(柄部) … 10cm
- (다) 병부직경(柄部直徑) … 4.9cm
- (라) 병부내혈(柄部內穴) … 2.9cm
- (마) 악실장(樂室長) … 12cm
- (바) 죽절(竹節) … 7cm
- (사) 통신전장(筒身全長) … 34.8cm
- (아) 구경(口徑) … 2.6cm

※ 명문(銘文) … 萬曆己卯四月 日造

勝字七斤六兩 匠揆加

이 총통(銃筒)의 발사과정(發射過程)은 다른 유통식(有筒式)과 같이 통구(銃口)에서 화약(火藥)과 실탄(實彈)(或은 箭)을 장진(裝鎭)하여 화승구(火繩口)에 인화(引火)시켜 목표물(目標物)에 발사(發射)하게 되었는데 이런 형태(形態)의 승자총통(勝者銃筒)은 본관(本館)을 위시(爲始)하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박물관(博物館) 등(等)에서 소장(所藏)하고 있으나 금반조사(今般調査)된 본(本)유물(遺物)이 제조년대(製造年代)가 좀 빠른 것이 특징(特徵)이다.

나. 쌍승자총통(雙勝字銃筒)의 제원(諸元)

- (가) 총장(總長) … 52.5cm
- (나) 병부(柄部) … 5.5cm
- (다) 병부직경(柄部直徑) … 3.6cm
- (라) 병부내혈(柄部內穴) … 2.4cm
- (마) 화혈간격(火穴間隔) … 9cm
- (바) 죽절간격(竹節間隔) … 6.8cm 5.9cm
- (사) 구경(口徑) … 1.5cm

※ 명문(銘文) … 雙字六斤六兩

每一穴線一村半

藥二羹式

丸二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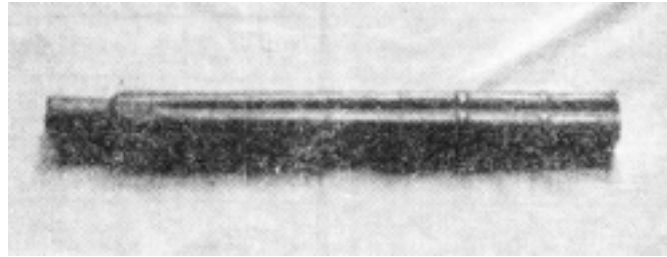
萬曆癸未八月 日

匠徐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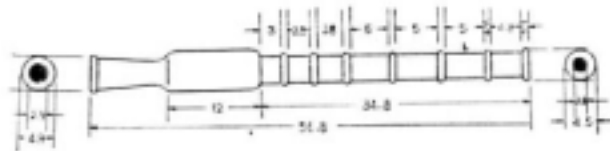
(萬曆己卯勝字銃筒)

〈萬曆己卯銘勝字銃筒〉



〈萬曆癸未銘雙字銃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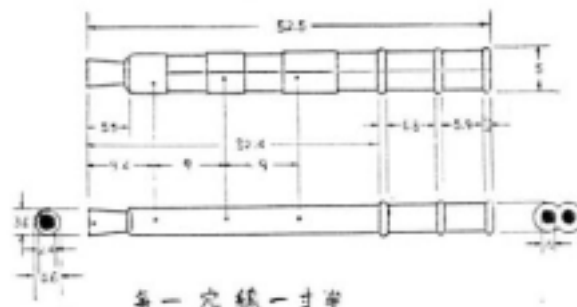
승자총통 (勝字銃筒)



萬曆己卯四月日造
 勝字七斤六兩
 匠 換加

승자총통 (勝字銃筒)

쌍자총통 (雙字銃筒)



每一穴橫一寸半
 藥二占式
 丸二式
 萬曆癸未八月日
 雙字六斤六兩
 匠 徐德

쌍자총통 (雙字銃筒)

이 총통(銃筒)의 특징(特徵)은 총신이개(銃身二個)를 합(合)쳐 주조(鑄造)하여 쌍총(雙銃)으로 되었고 일편(一片)총신(銃身)에 3발(發)을 연속장진(連續裝鎗)과 발사(發射)를 하게하므로 동시(同時)에 6발(發)을 연사(連射)할 수 있게 되었는바 발사과정(發射過程)은 승자총통(勝字銃筒)과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로 하되 발사법(發射法)은 총구(銃口)쪽서부터 순위(順位)대로 병부(柄部)쪽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方法)의 화기(火器)는 형태(形態)는 다르지만 삼안총(三眼銃), 오연자포(五連子砲) 등(等)을 들 수 있으나 쌍자총(雙字銃)으로는 처음 발견(發見)된 화기(火器)이다. 본(本) 화기(火器)가 발견(發見)된 후문(後聞)이지만 부산동아대학교박물관(釜山東亞大學校博物館)에도 쌍자총통(雙字銃筒)이 소장(所藏)되었다는 소식(消息)이었으나 실물(實物)자체(自體)는 확인(確認)한바 없으나 여하(如何)든 이러한 화기(火器)가 우리 선인(先人)들의 창안(創案)에 의(依)해 이루어졌고 또한 유전(遺傳)되었다는 점(點)을 고려(考慮)할 때 매우 기쁜 일이다.

4. 만력(萬歷)19년명소총통(銘小銃筒)

가. 제원(諸元)

- ㄱ. 총장(總長) ... 69.6cm ㄴ. 병부장(柄部長) ... 9cm ㄷ. 악실(樂室) ... 15cm
 ㄹ. 죽절(竹節) ... 8cm ㅁ. 병부내경(柄部內徑) ... 2.5cm ㅂ. 총구(銃口) ... 1.6cm

※ 명문(銘文) ... 萬歷十九年 月 日

小銃筒 重五斤
 藥三錢
 匠俊金

이조시대(李朝時代)를 통(通)하여 화승화기중(火繩火器中) 소화기(小火器)로써 현존(現存)하는 것은 세총통(細銃筒)을 위시(爲始)하여 신제총통(新製銃筒) 승자총통(勝字銃筒) 조총(鳥銃) 등(等)을 들 수 있고, 현존유물(現存遺物)로 세계(世界)에서 최고(最古)에 속하는 것은 일본인(日本人) 故黑田(구로다)씨(氏) 소장품(所藏品)인 홍무(洪武) 5년(1372) 청동제장총통(靑銅製長銃筒)(所莊吉著:火繩銃 昭和 39年 12月 20刊)이 유존(遺存)하며 우리나라에서 현존(現存)하는 유물(遺物)로는 형태(形態)는 다르지만 (죽절(竹節)이 없고 그대로 민땃한 형태(形態)임) 경희대학교(慶熙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소장(所藏)한 소승자총통(小勝字銃筒)(萬歷丁丑銘小銃筒 : 1577)이 있고 그 다음으로 상기(上記) 이(二)의 가, 나로 소개(紹介)한 승자(勝字)와 쌍승자(雙勝字)는 최초(最初)로 발견(發見)한 것으로 현재(現在) 창덕궁(昌德宮)에 진열(陳列)되고 있다. 중화기(重火器)로서는 현재(現在) 본관(本館)(육사박물관(陸士博物館))에서 保管되고 있는 천자총통(天字銃筒)(가정을묘명(嘉靖乙卯銘) : 1555—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서 대여(貸與))과 지자총통(地字銃筒)(가정(嘉靖)三十六年三月 日 : 1557)이 있는 실정(實情)이다.

이와같이 임란(壬亂)(1592)전(前) 유물(遺物)이 현존(現存)한다는 것은 기적(奇蹟)에 가까운 사실(事實)이 아니할 수 없으며 이제 소개(紹介)코져하는 소총통(小銃筒)역시(亦是) 임란(壬亂)전년(前年)인 1591년에 제조(製造)된 화기(火器)로서 이른바 당시(當時)

왜인(倭人)이 제조(製造)하였던 조총(鳥銃)의 제조과정(製造過程)보다도 훨씬 정밀(精密)한 감(感)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도면(圖面)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소총통(小銃筒)은 총신자체(銃身自體)를 휘게(구부러지게) 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현대식소총(現代式小銃)의 강선(腔線)을 연상(聯想)케 한 것으로 당시(當時)는 총신자체(銃身自體)를 구부러지게 함으로써 탄환(彈丸)이 장거리(長距離)에 도달(到達)할 수 있는 방안(方案)을 창안(創案)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병부(柄部)(손잡이)에는 목병(木柄)을 부착(附着)시켜 육박전(肉薄戰)에 임(臨)할때는 이것으로 적(敵)을 구타(毆打)(일본독매신문사주체(日本讀賣新聞社主催):철포(鐵砲) 6百年展 소개지(紹介誌) 소총통조(小銃筒條)하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같이 화기류(火器類)는 화통도감설치이후(火燭都監設置以後) 여러 형태(形態)로 제조(製造)를 거듭하였으며 특(特)히 세종기(世宗期)에는 화기(火器)의 개량(改良) 및 신발명(新發明)을 촉구(促求)하였음을 볼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안(創案)된 본(本)소총통(小銃筒)은 역시(亦是) 유통식(有筒式) 죽절형(竹節型) 화승화기(火繩火器)인바 승자총통(勝字銃筒)보다 특이(特異)한 점(點)을 다음과 같이 지적(指摘)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 총신(銃身)의 길이가 승자총통(勝字銃筒)보다는 길다는 점(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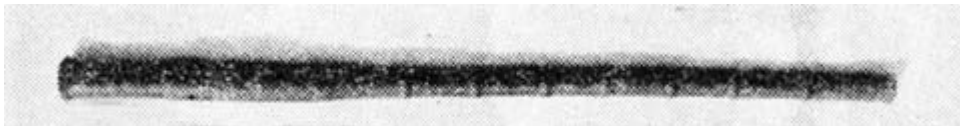
※ 총신이 길면 총탄이 장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

둘째 : 총신(銃身)을 구부러지게 하였다는 점(點)

※ 구부러진 총신(銃身)을 탄환(彈丸)이 경과(經過)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미치게 하였다는 점(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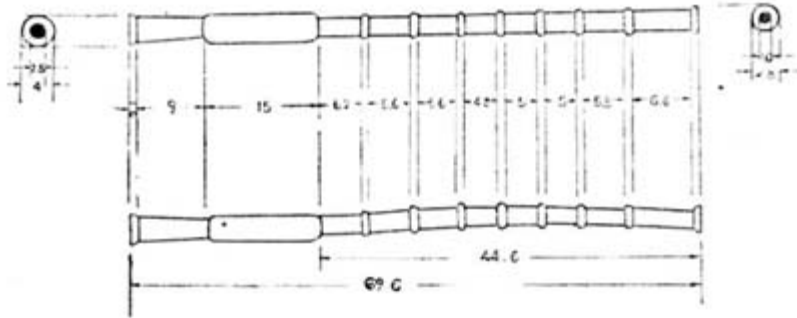
셋째 : 죽절간격(竹節間隔)이 넓다는 점(點)

※ 죽절(竹節)은 현금무기(現今武器)의 공냉식(空冷式)과 총신(銃身)의 파열방지(破裂防止)를 위(爲)하여 창안(創案)된 것인바 승자총(勝字銃)보다 간격(間隔)이 넓게 함으로써 속(速)히 과열(過熱)된 상태(狀態)에서 원상(原狀) 회복(回復)될 수 있게 하기 위(爲)함이다.



〈萬歷19年銘小銃筒〉

만력 19년명 소총통 (小銃筒)



銘文 萬曆十九年 月 日
 小銃筒 重五斤
 張澤相氏
 匠 俊金

만력 19년명 소총통(小銃筒)

5. 불랑기(佛狼機)

화승화기(火繩火器)의 대개(大概)가 유통식(有筒式)으로 되어있는 것이 통례(通例)이나 여기에 소개(紹介)코저하는 불랑기(佛狼機)는 후장식(後裝式)으로 된 것이 특징(特徵)이다. 현재(現在) 유물(遺物)을 보관(保管)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립박물관(仁川市立博物館)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강희(康熙)19년명(年銘)(1680) 불랑기(佛狼機)와 자포(子砲)가 각각(各各) 1문식(門式)이 있고 노량진(驚梁津)역후면(驛後面)(漢江便)에 있는 고(故) 장택상씨(張澤相氏) 별장현관입구(別莊玄關入口)에 裝飾(玄關入口를 佛狼機로 하여금 난간型式으로 裝飾畫하였음)되어있는 철제불랑기(鐵製佛狼機) 5문(門)과 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박물관(博物館)에 소장(所藏)하고 있는 자포(子砲)일문(一門)이 있으며 육사박물관(陸士博物館)에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昌慶苑)에서 대여(貸與)한 4호(號)불랑기(佛狼機) 2문(門)과 자포(子砲) 2문(門), 그리고 5호(號) 불랑기(佛狼機) 2문(門)과 자포(子砲) 1문(門)이 있을 뿐이다.

이 불랑기(佛狼機)의 수입경위는 중종(中宗) 10년(1510)에 불랑기(佛狼機) 제조법(製造法)이 포르투갈(Portugal)로부터 명(明)나라에 전래(傳來)(日本鐵砲 6百年誌 紹介誌附錄 昭和 41年 8月 21日刊)되었고 또한 선조(宣祖) 25년(年) 임진왜란(壬辰倭亂)(1592) 때 명군(名軍)이 우리나라에 원병(援兵)할 때 들여온 것인바 그 후 이를 본따 제조(製造)하기에 이른것인바 이는 일반유통식(一般有筒式) 화기(火器)와 특이(特異)한 점(點)은 일모오자(一母五子)라는 것이다. 즉(卽) 모포(母砲)일문당(一門當) 자포(子砲)가 5문(門)이 있음으로 해서 목표물(目標物)에 대(對)하여 연속(連續) 발사(發射)할 수 있다는 장점(長點)이다.

위와 같은 특징(特徵)을 간직한 불랑기(佛狼機)와 자포(子砲)에 대(對)한 제원(諸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호불랑기(四號佛狼機) 제원(諸元)

총장(總長) ... 103.3cm 중량(重量) ... 60kg

포신장(砲身長) ... 51.5cm

자포장진실장(子砲裝鎗室長) ... 28cm

병부장(柄部長) ... 14.5cm

포구의원경(砲口外圓徑) ... 10cm

포구내원경(砲口內圓徑) ... 3.5cm

빗장길이 ... 15cm

죽절간격(竹節間隔) ... 24cm (砲口便竹節부터 子砲裝鎗室竹絶까지)

정철장(定鐵長) ... 12cm

※ 명문(銘文) : 乙丑造上四號佛狼機

重一百斤

2) 자포(子砲) 제원(諸元)

총장(總長) ... 30.5cm

중량(重量) ... 10.65cm

내부장(內部長) ... 12cm

포구(砲口)에서 빗장멈치 ... 28.5cm

빗장멈치 ... 2.0cm

포구의원경(砲口外圓徑) ... 7.6cm

포구내원경(砲口內圓徑) ... 3.6cm

※ 명문(銘文) : 康熙午年丙午三月 日

統營所造四號子砲第九十 重十八斤 七兩 色人李興水 監造官 申起立 匠

人朴弘一

3) 오호(五號) 불랑기(佛狼機)제원(諸元)

총장(總長) ... 69.2cm

포신장(砲身長) ... 33.1cm

자포장신실장(子砲裝身室長) ... 28.6cm

병부(柄部) ... 7.5cm

병구의원경(柄口外圓徑) ... 11.5cm

병구내원경(柄口內圓徑) ... 4.5cm

포구의원경(砲口外圓徑) ... 7cm

포구내원경(砲口內圓徑) ... 2.5cm

※ 명문(銘文) : 乙酉十一月 日告

重五十二斤 壯勇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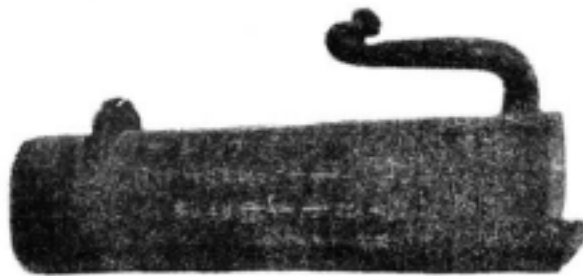
위와같은 제원(諸元)을 갖춘 불랑기(佛狼機)의 발사과정(發射過程)을 살펴보면 우선(于先) 자포(子砲)에다 유통식(有筒式)에 의(依)한 과정(過程)으로 장진(裝鎗)(포구(砲口)에서 화약(火藥)과 실탄(實彈)을 압입(押入)하여 모포(母砲)인 불랑기(佛狼機)후면(後面) 자포압입처(子砲押入處)(子砲裝鎗室)에 넣고 설치(設置)한 빗장을 건다음 자포(子砲) 뒷 부분(部分)에 있는 화승구(火繩口)에 인화(引火)시켜 목표물(目標物)에 대(對)하

여 발사(發射)하게 되어있다. 한편 자포(子砲)가 5개 있음으로써 미리 장진(裝鎭)된 자포(子砲)를 계속교환(繼續交換)함으로써 연속(連續) 발사(發射)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현금(現今)에 사용(使用)하는 후장식(後裝式) 화기(火器)의 발사과정(發射過程)과 대등(對等)하다는 점(點)이다. 이와같은 불랑기(佛狼機)는 현존유물(現存遺物)로 판단(判斷)하건대 그 형태(形態)에 있어 4호(號)와 5호(號)를 비교(比較)하면 수자(數字)가 거듭할수록 적(小)은 형태(形態)로 제조(製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卽) 4호(號) 불랑기(佛狼機)는 위 제원(諸元)에서 밝힌 바와같이 총장(總長)이 103.3cm임에 비(比)해 5호(號) 불랑기(佛狼機)는 총장(總長)이 69.2cm에 불과(不過)한 점(點)으로 미루어보아 지적(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형태(形態)에 대(對)해서 상기(上記)한 바와 같거나와 현재(現在)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호(號)로부터 3호(號)까지의 유물(遺物)이나 문헌(文獻)을 발견(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며 또한 현재(現在) 소장(所藏)하고 있는 불랑기(佛狼機)에 대(對)하여 제조(製造)과정을 세심(細心)한 주의(注意) 기울여 조사(調查)한바에 의(依)하면 선인(先人)들이 창안(創案)한 이 화기(火器)는 정밀(精密)하고 치밀(緻密)한 계획하(計劃下)에 이루어졌는바 포자체(砲自體)에다 정철(定鐵)(타화포(他火砲)는 포신(砲身)에 양귀 이부(耳部)가 있어 포가(砲架)에 설치(設置)하게 되었음)시켜 상하(上下) 좌우(左右)로 조정(調整)할 수 있게 하여 목표물(目標物)에 대(對)하여 자유(自由)로이 조준(照準)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點)이며 또한 죽절(竹節)에는 당초문양(唐草文樣)을 음각(陰刻)(사호불랑기(四號佛狼機)의 경우(境遇))으로 장식(裝飾)하였다는 점(點) 또한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모포(母砲)는 청동(靑銅)으로 제작(製作)하였는데 반(反)해 자포(子砲)는 철제(鐵製)로 제작(製作)하였다는 점(點)이다. 이는 모포(母砲)의 량(量) 보다 자포(子砲)의 량(量)이 대량(大量) 소요(所要)됨에 따라 경제적(經濟的)인 면(面)을 고려(考慮)한 점(點)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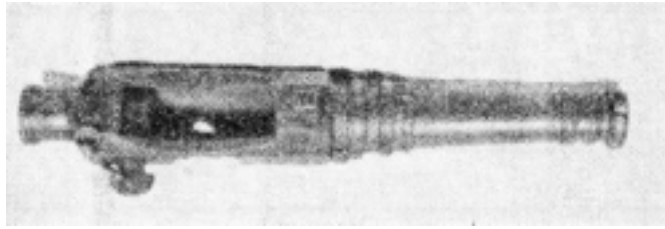
己酉造上銘 四號 佛狼機

〈己酉造上銘 四號 佛狼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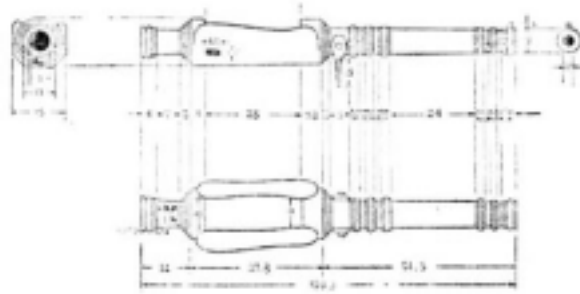
康熙五年銘四號子砲

〈康熙五年銘四號子砲〉



〈5號 佛狼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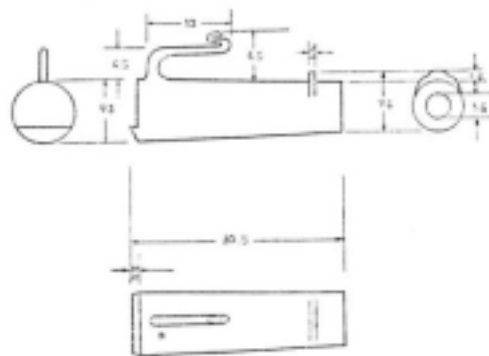
4호 불랑기 (佛狼機)



銘文 己丑年上 四子 佛狼機 重一石斤

4호 불랑기(佛狼機)

4 호 자포 (子砲)



咸豐五年丙午二月 日 統營所造
 四子砲器九十重十八斤七兩
 監造軍官申起士
 色吏李興水
 匠人朴五一

4호 자포(子砲)

6. 대완구(大碗口) 및 비진천뢰(飛震天雷)

혹자(或者)는 지금도 포성(砲聲)이 울리면 「웬 댕구 소리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댕구란 대완구(大碗口)를 말함이니 이는 화승화기(火繩火器)의 일종(一種)으로 이조초기(李朝初期)로부터 이조말(李朝末)까지 사용(使用)하였음을 문헌(文獻)이나 또는 유물(遺物)을 통(通)하여 입증(立證)할 수 있는 것이며 역시(亦是) 공수성용(攻守城用)으로 널리 활용(活用)되었고 빈번히 침입(侵入)한 여진족(女眞族)과 격왜(擊倭)에 없어서는 아니될 당시(當時)의 정예무기(精銳武器)로 사용(使用)하였던 것이다.

대완구(大碗口)가 제조(製造)되기는 세종대왕(世宗大王)(1418~1450)이전에 제조(製造)되었음을 문헌상(文獻上)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일부를 밝혀보면 세종(世宗) 19年 7月 을묘조(乙卯條)에 평안도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 이장(李藏)(1376~1451)이 품의(稟議)하기를 「大碗口는 至重하여 馱載하기 難하니 無用이오」라는 기록(紀錄)을 볼 수 있고 기후(其後) 선조(宣祖) 25년(年)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박진(朴晉)이 비진천뢰(飛震天雷)를 대완구(大碗口)로 발사(發射)하여 경주성(慶州城)을 탈환(奪還)하였으니 선조(宣祖) 25년(年) 9월(月) 사정이조(朔丁巳條)에 「晉이 이미 敗戰하고 다시 集兵하여 安康縣에서 屯치고 밤에 潛兵하여 다시 나아가 城外로부터 飛震天雷를 쏘아 城中에 들어 보내어 陣內에 떨어지게 하니 敵이 그 製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다투어 모여서 보며 함께 밀고 굴리고하며 무엇인가를 알고자할때에 별안간 飛震天雷의 中心으로 날아오는 鐵片에 맞아 斃려지고 자빠져서 죽은자가 20여명이었다. 敵陣이 全部 精神없이 자빠지며 驚懼치 않은자 없으며 鬼神의 조화라하여 다음날에 드디어 城을 버리고 西生浦로 逃亡하여 돌아갔다. 드디어 慶州에 들어와 남은 穀食 萬餘石을 얻었고 이 事實이

朝廷에 알려져 嘉善大夫에 昇進하였다」 또한 「飛震天雷는 前日에는 製造치 않았었는데 火砲匠 李長孫이 創出하여 震天雷를 大碗口에 넣어 쏘아 그 能力이 5.6백보를 飛(날려)하여 땅에 떨어지면 조금있다가 불이 內部로부터 발하여 터지므로 敵陣을 陷落시키는 데에 最善의 武器였으나 後日에는 쓰지 않았다」 라고 한 기록(紀錄)을 볼 수 있고, 이와같은 내력(來歷)을 간직한 대완구(大碗口)는 그 종류(種類)가 다음 제원표(諸元表)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3종(種)으로 구분(區分)(戎垣必飛 大碗口條 : 1812年刊)되나 세종(世宗)19年 7月 을묘조(乙卯條)에는 별대완구(別大碗口), 대완구(大碗口), 중완구(中碗口), 소완구(小碗口) 등(等) 사종(四種)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에 제시(提示)되는 제원(諸元)은 용원필비(戎垣必備)에 의(依)한 것이다.

가. 완구(碗口)의 제원(諸元)

諸元 區分	總 長	內 圓 徑	外 圓 徑	碗 項 長	碗項至底	下 圓 徑
別大碗口	3尺3寸	1尺8寸5分	2尺4寸	1尺7寸	2尺2寸	1.6寸
大 碗 口	3尺1寸	1尺3寸1分	1尺7寸	2尺2寸	2尺	1尺1寸3分
中 碗 口	2尺8寸3分	1尺	1尺3寸2分	1尺9分	1尺7寸4分	9尺2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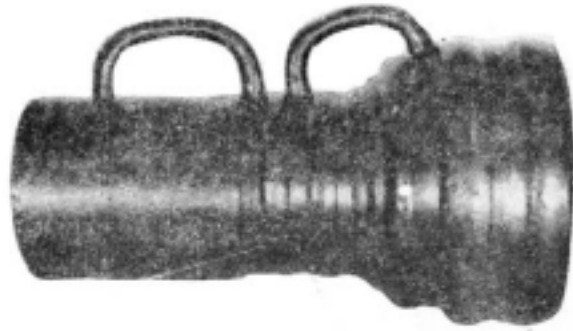
나. 비진천뢰(飛震天雷) 및 단석(團石)의 제원(諸元)

區分 種類	飛 雷 天 震	射 距 離	團 石	射 距 離
別 大 碗 口	120斤	350步	120斤	400步
大 碗 口	66斤	400步	45斤	500步
中 碗 口	30斤	350步	35斤	500步

상기(上記) 가. 나 제원(諸元)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완구(碗口) 종류(種類)에 따라 형태(形態)(대소(大小))의 차이(差異)가 현저(顯著)하며 더욱이 수철주성(水鐵鑄成)의 각종(各種) 비진천뢰(飛震天雷)는 내부(內部)에 화약(火藥)과 더불어 빙철(憑鐵), 죽통(竹筒) 목곡(木谷) 등(等)이 들어가고 개철(蓋鐵)로 덮게 되었고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현대포탄(現代砲彈)과 같이 탄착지점(彈着地點)에서 폭발(爆發)하게 되어 적(敵)에게 크나큰 손실(損失)을 주게된 것이 특징(特徵)인 것이며 또한 단석(團石)은 비진천뢰(飛震天雷)와 같은 형태(形態)로 돌(石)을 갈아서 제조(製造)한 것인바 비록 비진천뢰(飛震天雷)와 같이 탄착지점(彈着地點)에서 폭발(爆發)은 되지 않으나 제원(諸元)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원거리(遠距離)에 도달(到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長點)인 것이다.

7. 동치(同治) 13년명(年銘) 소포(小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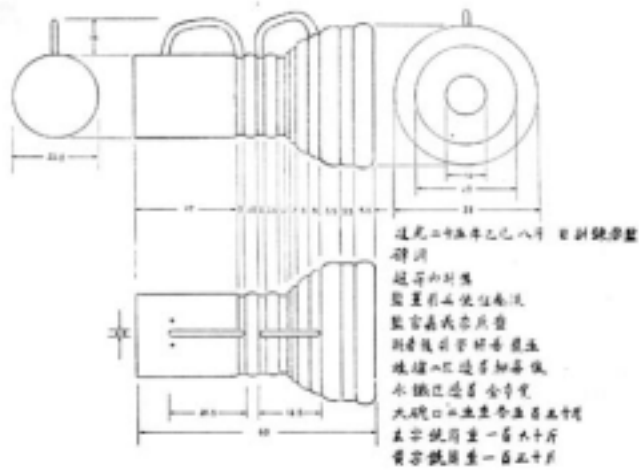
화승화기(火繩火器)로는 소화기(小火器)인 세총통(細銃筒)으로부터 천(天), 지(地), 현(玄), 황포(黃砲)의 중화기(重火器)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形態)로 구분(區分) 분류(分類)할 수가 있는 바이나 대포류(大砲類)로 분류(分類)되는 것은 역시(亦是) 중화기(重火器)로 구분(區分)할 수 있는 소포(小砲), 중포(中砲), 중포(中砲), 대장군포(大將軍砲) 상기(上記) 천(天), 지(地), 현(玄), 황포(黃砲) 등(等)을 일괄(一括)하여 통칭(統稱)하는 것으로 여기 소개(紹介)코져 하는 동치(同治) 13년명소포(年銘小砲)(1874)는 이조후기(李朝後期)에 제조(製造)한 것으로 전기(前期)에 제조(製造)한 무기형태(武器形態)와 비교(比較)하건대 매우 주조과정(鑄造過程)에 있어 뛰어난 솜시를 자랑할 수 있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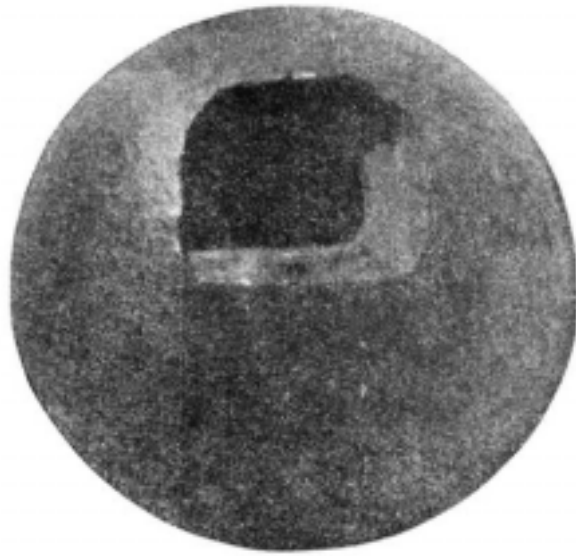
〈道光二十五年 銘大碗口〉

〈道光二十五年 銘大碗口〉

대완구(大碗口)



대완구(大碗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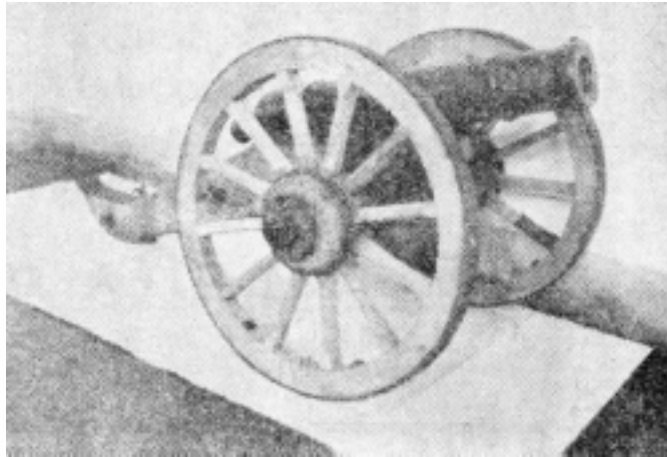
〈飛震天雷〉

〈飛震天雷〉

雷天震飛大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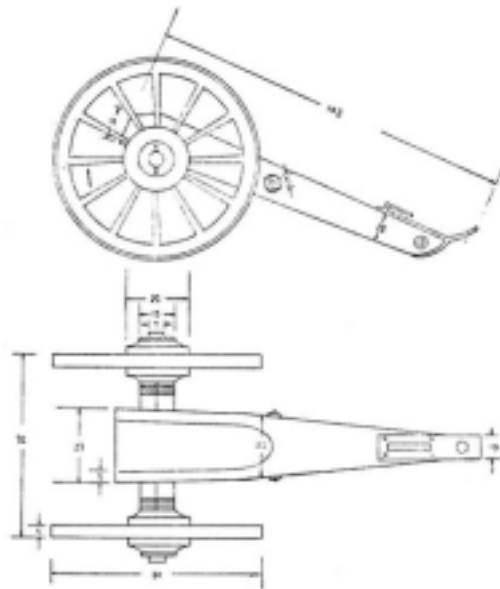


雷天震飛大別



〈同治 13年銘小砲〉

소포포가 (小砲砲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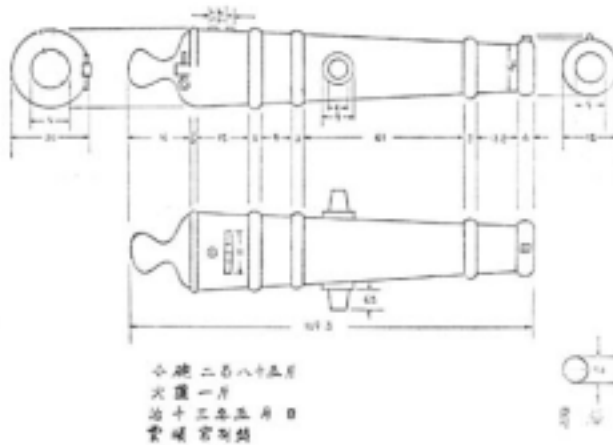


소포포가(小砲砲架)

우선 포가(砲架)는 목제차륜식(木製車輪式)으로 이동(移動)에 편리(便利)하게 하였고, 목표물(目標物)에 대(對)하여 전후좌우(前後左右)로 자유(自由)로이 방향(方向)을 전환(轉換)할 수 있다는 점(點)과 포신(砲身)의 이부(耳部)를 포가(砲架)에 고정(固定)시켜 고하(高下)를 자유(自由)로이 조정(調整)함으로써 장단거리(長短距離) 목표(目標)를 조준(照準)할 수 있다는 점(點) 등(等)이 특징(特徵)인 것인바 이는 공수성용(攻守城用) 외(外)에 회전(會戰)에도 능(能)히 사용(使用)하기에 편리(便利)한 무기(武器)이다. 전기(前期)에 제조(製造)된 천지현황(天地玄黃), 대장군포(大將軍砲)등(等)의 중화기(重火器)는 이동(移動)에 있어 극(極)히 제한(制限)된 무기(武器)이나 소포(小砲), 중포(中砲)에 있어서는 매우 발전적(發展的)인 양상(樣相)을 구비(具備)한 점(點)을 들 수 있는 것이

다. 탄환(彈丸)은 본관(本館)에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창경원(昌慶苑))으로부터 대여(貸與)할 당시(當時) 확인(確認)(포신(砲身)속에 끼어 있었음)된 바이나 산탄(散彈)이 아니고 철제(鐵製)(圖表參照)로서 원형(圓形) 그대로이므로 효과적(效果的)인 면(面)으로는 희박(稀薄)할 것이나 명중(命中)만 된다면 산탄(散彈)에 비(比)할바가 아니다. 이 소포(小砲)는 현재(現在) 유존(遺存)하는 유물(遺物)중(中) 가장 원형(原型)을 유지(維持)하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소포 포신 (小砲砲身)



소포 포신(小砲 砲身)

8. 결론(結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通)하여 전쟁(戰爭)의 승패(勝敗)는 무기발전여부(武器發展與否)에 있음은 재론(再論)를 요(要)치 않는 바이며 특(特)히 우리나라의 경우(境遇) 선인(先人)들의 화약(火藥)의 제법(製法)과 각종화기(各種火器)의 제조(製造)를 위(爲)해서 고심(苦心)한 자취는 사서(史書)를 통(通)하여 역력(歷歷)한 바이다. 대체(大體)로 본국(本國)을 떠나 외국(外國)을 공략(攻略)하기 보다는 본국(本國)을 수어(守禦)하기 바빴던 과거형세(過去形勢)로는 무기(武器)의 연구발전(研究發展)이 북(北)으로는 여진족(女眞族)의 오랑캐에 대침략(對侵略)과 남방(南方)의 왜관침입(倭寇侵入)을 방어(防禦)하기 위한 방책(方策)이었으며 또한 이들의 외침(外侵)이 있을 때는 서들렀다가도 잠잠하던 시들어져서 무기(武器)의 발전(發展)을 보지 못한 점(點)과 더 나아가서는 당쟁(黨爭)과 안일무사주의(安逸無事主義)로 급기야(及其也)는 임진왜란(壬辰倭亂)(1592)과 병자호란(丙子胡亂)(1636)과 같은 치욕적(恥辱的)인 역사(歷史)를 갖게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고대군사면(古代軍事面)에 좀더 진취적(進取的)이고 활발(活潑)한 연구(研究)를 거듭하여 후세(後世)에 올바른 역사관(歷史觀)을 계승(繼承)시키고자 하는 미충(微衷)에서 본지면(本紙面)을 통(通)하여 줄문(拙文)으로 맺고자 한다.